



리사조
진봉창

한국체육대학보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277호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http://news.knsu.ac.kr

3 종합
축제의 이면, 사건사고 총정리

6~7 선택 2024
제가 만들고 싶은 한국체대는요!

8 기획
성인 ADHD의 문제점

9 기획
콜 포비아, 질병이 아닌 시대적 흐름이다

천마 축제, 우리가 써 내려간 청춘의 한 장



11월 8일, 천마 응원단 김아인 단장(사회체육 19)이 공연 때 한국체대 팻말을 들고 학우들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

사진: 김채람 수습기자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열린 ‘천마 축제: 동화’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2022 ‘천마 축제: 헬러윈’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만큼 이번 축제에도 학우들의 기대는 높았다. 제45대 라온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이에 부응하는 축제를 선보였다. ‘동화’라는 주제로 축제를 기획한 총학에 호평이 쏟아졌다. 지난 축제보다 많아진 푸드트럭과 어트랙션(Attraction, 놀이기구), 새롭게 준비한 플리마켓이 학우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교복이라는 드레스 코드를 통해 학우들이 동심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 무대 구성 또한 알차다. 학우들의 장거 자랑과 더불어 아티스트의 공연까지 펼쳐지자 사람들은 추운 날씨를 잊고 축제를 즐겼다. 그러나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면도 있기 마련이다. 총학의 무료 주차 공지 삭제, 외부인 재학생 존 출입, 소음으로 인한 경찰 출동 등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축제의 명과 암을 살펴 보자.

백중훈 수습기자 3605a@naver.com



축제 기간 하키장에서 어트랙션 중 하나로, 버블 슈트를 입고 시간 내에 발로 판을 넘기는 게임인 ‘판뒤집기 of 버블 슈트’가 진행됐다. 참여 학우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사진: 박정윤 기자

학교를 수놓은 이벤트

총학은 축제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부스 활성화에 힘썼다. 기본적인 학교 부스를 비롯해 락로스 슈팅을 해보는 ‘Let’s Lacrosse’ 부스, 로잉머신 체험을 준비한 조정부의 ‘Row or Die’ 부스 등 우리 대학 특색을 활용한 부스들이 대운동장을 메웠다.

그중, 가장 인기 있던 곳은 교내 스포츠 마케팅 학술 동아리 ‘PLIS(플러스)’의 부스였다. 이들은 의류 판매와 ‘판나 풋볼’을 함께 진행했다. ‘판나 풋볼’은 3분간 진행되는 1:1 풋살 경기다. 사전 신청한 학우는 토너먼트를 진행해 우승자에게 ‘FCMM’ 숏패딩을 수여했고, 현장에서 신청한 학우는 5연승 달성 시, ‘FCMM’ 장갑과 넥워머를 증정했다. 부스를 기획한 PLIS 송종우 회장(사회체육 21)은 “동아리 부원들이 부스를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하고, 현장 경험을 키웠

으면 좋겠다.”라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또한 “많은 학우가 즐거워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덧붙였다.

총학이 준비한 사탕 친구 부스도 인기였다. 사탕 친구는 사탕에 인스타그램 아이디, 전화번호 등이 적힌 쪽지를 사탕에 매달아 상자에 넣고, 사탕을 뽑아 나온 사람에게 연락하는 이벤트였다. 재학생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천마 축제의 주제였던 ‘동화’의 느낌을 내기 위해 준비한 어트랙션과 플리마켓은 학우들로 북적였다. 어트랙션으로는 하키장에서 ‘버블슈트’와 ‘낙하바운스’가, 오륜관 앞에서는 ‘미니바이킹’이 운영됐다. 플리마켓은 천마상과 대운동장 사이 공간에서 진행됐다. 어트랙션과 플리마켓을 체험한 조예원 학우(운동건강관리 22)는 “지난 축제보다 즐길 게 많아서 좋았다.”라며 총학의 기획을 칭찬했다.

무대를 빛낸 사람들

오후 6시가 되자 축제의 분위기는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대운동장에서 펼쳐진 학우들과 교내 동아리, 초청 가수들의 무대는 학교 전체에 열기를 불어 넣었다. 수많은 무대 중 학우들의 매력을 볼 수 있었던 공연은 ‘쇼미더폼’이었다. 올해 총학은 학우들끼리 자유롭게 팀을 꾸려 참가할 수 있는 ‘쇼미더폼’을 새롭게 선보였다.

‘쇼미더폼’은 ‘끼스’ 팀(신은정, 김다현, 강유진, 고나영(이하 사회체육 21), 지태인(사회체육 22), 최현승(노인체육복지 22))이 우승을 차지했다. 8팀 중 마지막 순서로 무대에 오른 그들은 사이의 〈뉴페이스〉, 〈예술이야〉를 공연했다. 학우들은 다함께 노래를 따라부르고 춤추며 무대를 즐겼다. 주장 신은정 학우는 “1위는 기대하지 않았다. 즐기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무대를 빛낸 동아리는 ‘지상만무’, ‘휠체어 댄스’, 태권도 학과의 익스트림 공연 동아리인 ‘일루션’, 그리고 ‘천마응원단’이다. 특히 ‘천마응원단’의 응원대제전 무대는 학우들을 결속시켰다. 응원대제전 공연을 관람한 김중현 학우(운동건강관리 22)는 “천마 응원단과 OB선배들이 함께 한 무대를 보며 ‘한국체대’를 외침과 동시에 애교심이 끓어올랐다.”라고 말했다. 천마응원단 김아인 단장(사회체육 19)은 “두 달 정도 준비했다. 잘



11월 7일, ‘쇼미더폼’ 1위를 차지한 ‘끼스’ 팀의 수상 사진이다. 좌측 뒷줄부터 지태인(사회체육 22), 최현승(노인체육복지 22), 김다현, 고나영, 신은정, 강유진(이하 사회체육 21)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 이세은 수습기자

따라와 준 단원들에게 고맙고 (덕분에) 행복한 추억이 됐다.”라며 공연을 회상했다.

학우들의 공연 이후, 아티스트 무대가 진행됐다. 김승민과 프로미스나인(1일차), 케이시와 지코(2일차)가 공연을 펼쳤다. 김승민은 “한국체대 학생들의 호응이 너무 좋았다. 너무 잘 놀아서 오히려 내가 예너

지를 얻고 간다.”라며 즐거운 마음으로 회상했다. 아티스트 무대에 학우들은 추위도 잊은 채 열광했고 지코는 물을 뿌리는 퍼포먼스로 응답했다. 공연이 끝나고도 식지 않은 열기는 다제임 파티까지 이어졌다. 그 무대를 끝으로 ‘천마 축제: 동화’의 모든 일정이 종료됐다.

총학생회에 고마움을

축제를 위해 고생한 총학을 칭찬하는 글이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인기글에 올랐다. 지난 축제보다 나았다는 평도 많았다. 축제를 총괄한 오승진 부총학생회장(노인체육복지 19)은 “많은 학우가 즐거워서 고맙고 보람차다.”라며 즐길 거리가 많아 좋았다는 학우들의 반응에 답했다. 이어 “축제를 위해 봉사한 축제준비위원회, 총학생회에게 고맙다.”라며 도움을 준 모든 이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총학생회와 축제를 칭찬하는 글이다.

정정보도

10월 30일 발간된 276호 1면 《먼지 덮인 학생 인권》기사의 〈먼지가 가득했던 내진 보강 공사〉에서 상세한 인적사항 없이 ‘차 팀장’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이를 ‘시설총괄팀 차래혁 팀장’으로 정정합니다.

다. 독자 여러분께 불명확한 표현으로 불편을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기사를 위해 인터뷰 해주신 차래혁 팀장님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체육대학보 편집장 한지용-

» 3면으로 계속

체육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다

2023 한국체육대학교 국제학술대회



11월 9일, 본교 본관 1층 합동강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체육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김세준 조교

2023 한국체육대학교 국제학술대회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올림픽파크텔과 본관 1층 합동강의실 등지에서 개최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체육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캐나다, 이탈리아, 홍콩 등 총 5개국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코로나19로 인해 체육학 연구의 어려움을 학술대회로 해소하길 바라는 의도에서 열린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스포츠용품과 과학 ▲스포츠 이벤트 경영 ▲스포츠 부상 예방 ▲운동 역학을 적용한 스포츠 코칭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했다.

스테파니신 교수(Darren J. Stefanyshyn, 캐나다 켈거리 대학 스포츠 생명 공학)가 기조 강연을 펼쳤다. '생체역학을 바탕으로 제작한 맞춤형 스포츠용품이 선수의 기량 발휘와 부상 방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초청받게 돼 매우 기쁘다. 다른 강

연자들이 보여준 발표의 질과 개최 측의 세심한 배려에 감명받았다."라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외에도 마리아 카이어 교수(Maria Caire,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 스포츠 이벤트 관리), 레이먼드 치흥소 소장(Raymond Chi Hung So, 홍콩 스포츠연구소 스포츠 생리학), 추쭈안 첸 교수(Tzu-Hsuan Chen, 타이완 체육대학 저널리즘과 매스커뮤니케이션), 토시오 야나기야 교수(Toshio Yanagiya, 일본 준텐도 대학 휴먼 사이언스), 박수경 교수(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가 발표를 이어가며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주관한 우리 대학 체육과학연구소 박상균 소장은 "성황리에 막을 내려 기쁘다. 그러나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며 앞으로도 꾸준히 개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이세은 수습기자 sae_un@naver.com

제1회 한국체대 × 건국대 연합창업캠프 개최



11월 11일, 제1회 한국체대X건국대 연합 창업캠프에서 3조 조원들이 발표를 위해 회의하고 있다.

사진: 김채람 수습기자

제1회 한국체육대학교·건국대학교 연합 창업캠프가 11월 11일 건국대학교 법학원 대강당에서 펼쳐졌다. 한국체대의 제안으로 열린 이번 캠프는 다른 대학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최됐다.

각 대학에서 19명씩 총 38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더불어 우리 대학 인재개발원장 조옥상 교수, 건국대학교 창업지원단 조재성 교수, 인카운터경영연구소 김승환 소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전문가 초청 강연 ▲팀 발표 준비 및 멘토 피드백 ▲최종 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최종 팀 발표 주제는 '서울시 및 송파구와 광진구의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이었다.

대상의 주인공은 우리 대학 김하균(스포츠청소년지도 18), 전나현(노인체육복지 21) 학우와 건국대학교 최승엽(시스템생명공학 17), 김두현(전기전자공학 21) 학생으로 구성된 8조였다. '도시락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노인 일자리 확보'에 대해 발표해 심사위원들의 반응을 끌어냈다.

김하균 학우는 "사회 문제 해결 및 수익 창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해 까다로웠지만, 적극적으로 팀원들과 의견을 주고받아 가장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을 찾았다."라며 대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

건국대학교 최승엽 학생은 "한체대 학생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창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 시너지가 났다."라며 우리 학우들을 칭찬했다.

인재개발원장 조옥상 교수는 "다른 종합대학 학생들은 전공도 다양하고 창업에 대한 여러 지원사업에도 많이 참여하지만, 우리 대학은 그런 기회가 부족하다. 그래서 건국대학교에 먼저 연합캠프를 제안했다."라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스포츠 관련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주길 기대했는데 예상보다 부족해 아쉽다. 하지만 창업에 도전하려는 학생들의 열정과 태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캠프를 되짚었다.

인재개발원은 앞으로도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 원장은 "창업에 대한 학생들의 잠재력을 확인했다. 정부지원사업과 1:1 멘토링 등을 유지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백중훈 수습기자 3605a@naver.com

제104회 전국체전, 노력의 결실을 맺다

한국체대 선수 다관왕 달성 및 총 169개 메달 획득

한국체대 학우들이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라남도 목포 등지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에 출전해 총 169개 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전국체전에 참가한 한국체대 학우 499명이 27개 종목에서 금메달 49개, 은메달 60개, 동메달 60개를 수확했다. 작년에 비해 전체 메달 수는 4개 적다. 하지만 작년에 입상하지 못한 ▲사이클 ▲하키 ▲핸드볼 ▲검도 ▲스쿼시 ▲소프트 테니스 종목이 입상에 성공했다.

가장 많은 메달이 나온 종목은 22개를 따낸 레슬링이다. 그다음으로는 태권도와 육상 단거리(계주 종목 포함)가 각각 16개와 15개 메달을 획득했다.

이재성 학우(체육 20)는 육상 단거리 100m, 200m, 100m 계주, 400m 계주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며 4관왕을 달성했다. 이 중 100m(10초32), 200m(20초70), 400m(39초98) 계주에서 대회 신기록을 갈

아치웠다. 이 학우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잘 마무리해 그 흐름을 타 전국체전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교수님과 조교선생님 덕분에 3개의 대회 신기록을 세우게 됐다. 학생 신분으로 뛰는 마지막 대회에서 선물을 받아 행복하다. 가족과 교수님, 조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임시현 학우(체육 22)는 양궁 종목에서 전국체전 3관왕을 달성했다. 30m, 70m,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중 30m에서 대회타이기록(359점)으로 작성했고, 개인전에서는 대회 신기록(1,395점)을 세웠다. 임 학우는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온 뒤라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어느 정도 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마음으로 전국체전을 준비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서서히 감이 잡히는 것이 느껴져 재밌었다. 욕심을 버리고 출전한 전국체전에서 3관왕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영광이다."라고 전했다.

김준영 학우(체육 20), 나광민 학우(체육 21)는 배드민턴 남자 복식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2관왕을 달성했다. 김 학우는 "전국체전이라고 다를 거 없이 평소대로 훈련했다. 타 대회와 달리 전국체전은 남자 복식부터 진행하는데, 복식에서 우승한 기세로 단체전에서도 좋은 기량이 나왔다. 전국체전 우승이 처음이라 더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나 학우는 "전국체전 전에 선수촌에서 대표팀 형들과 같이 훈련하며 많이 배워 경기력이 오른 상태였다.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 단체전과 복식 2관왕 우승 실재 징크스가 있었는데 올해를 마무리하는 전국체전에서 이를 극복해 더 뜻깊고 특별했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한편 제105회 전국체전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에서 개막한다. 김해를 중심으로 경남 도내 18개 시군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박정윤 기자 junung88@naver.com

한국체대, 대한민국 종합 4위에 일조

2022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



2022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에서 메달을 수상한 윤지유(좌), 김경빈(중) 학우와 김세정(우) 원우다. 각자 나라를 대표해 좋은 결과를 내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 제공: 본인

우리 대학 선수 5인이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펼쳐진 2022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에서 4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윤지유 학우(특수체육교육 19)는 여자 탁구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여자 복식과 혼성 복식에서 동메달 하나씩을 목에 걸었다. 윤 학우는 2020 도쿄 패럴림픽 탁구 여자 단식 동메달, 2016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탁구 여자 단체전 동메달을 수상한 실력자다. 윤 학우는 "복식에서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대회였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김경빈 학우(경기지도 23)는 남자 수영 100m 평영 2위를 차지했다. 3위와는 단 0.11

초 차였다. 김 학우는 "순위에 듣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덕분에 간발의 차이로 은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풀어냈다.

김세정 원우(일반대학원 23)는 여자 조정 싱글스컬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김 원우는 "즐겁게 훈련했기에 떨지 않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 세계 강호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응원해준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 선수들이 이 같은 활약을 펼친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번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에서 금메달 30개, 은메달 33개, 동메달 40개를 거두며 종합 4위에 올랐다.

강현석 기자 fcnx000@naver.com

도서관 홈페이지 200% 활용법 알아보기

2023 학술정보원 전자정보박람회

2023 학술정보원 전자정보박람회가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메타버스 도서관 7층 메타라운지에서 개최됐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전자자료와 전자책 이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 총 150여 명의 학우와 교직원들이 참여했다.

총 12개 업체가 박람회 부스를 꾸렸다. ▲KISS ▲DBpia ▲SPORTDiscus ▲북코스 모스도서요약 ▲e-Article ▲스콜라 ▲로앤비(LAWnB) ▲KoreaAtoZ 등 8개 전자학술 DB 업체가 학우들에게 전자자료 찾는 법을, ▲북큐브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 4개 전자책 업체가 전자책 이용 방법을 홍보했다.

상품 이벤트도 진행했다. 박람회 부스를 8개 이상 방문한 참가자에게 응모권이 주어졌

다. 총 20명의 학우와 교직원이 갤럭시탭A8, 갤럭시버즈2, 삼성UV살균기 등을 받았다.

이날 박람회를 찾은 김준형 학우(스포츠청소년지도 18)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몰랐다. 앞으로 과제 할 때 큰 도움을 받을 것 같다."라는 참가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학술정보원 정보관리팀 강원석 행정주사는 "새로워진 도서관을 홍보함과 동시에 도서관 이용 방법을 알려주고자 (박람회를) 열었다."라며 박람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학생들이 전자자료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길 바란다. 또한 (박람회 참가 후) 도서관 홈페이지를 더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서진 부장기자 psj3158gh@naver.com

축제의 이면, 사건사고 총정리

» 1면에서 계속

봉우리는 어디에

축제에서는 ‘지상만무’, ‘천마응원단’, ‘일루션’ 등 여러 동아리의 무대가 펼쳐졌다. 그러나 우리 대학 유일 밴드 동아리인 봉우리의 무대는 볼 수 없었다. 이유는 음향 장비를 대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45대 라온 총학생회 오승진 부총학생회장(노인체육복지 19)은 9월 14일, 동아리 대표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축제 공연 희망자를 모집했다. 그는 ▲동아리명 ▲대표자명 ▲유형 ▲희망공연시간 ▲예상 참여인원 ▲특이사항 등 정보를 9월 22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모집 당일인 14일, 봉우리 박지운 회장(운동건강관리 19)은 특이사항으로 밴드 음향 장비가 필요하다고 연락했다. 하지만 10월 6일 열린 공연대표자 회의에서 봉우리 박 회장은 총학생회(이하 ‘총학’)로부터 장비 대여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밴드 음향 장비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남긴 지 3주가 지난 다음에야 총학은 장비 대여 업체와 연락했다. 확인 결과, 가격대가 예산을 초과해 대여가 불가능했다. 그리고 봉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동아리 내 장비로는 공연할 수 있냐 물었다. 봉우리는 무대 규모에 맞는 장비가 없어 힘들다고 답변했다.

축제 총괄을 맡은 오 부회장에게 자세한 내막을 물었다. “봉우리가 장비 대여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장비가 120~150만 원 대의 금액이었다. 예상치 못한 금액이었고, 예산이 부족해 대여할 수 없었다.”라며 입장을 드러냈다. 덧붙여 오 부회장은 “물론 총학생회가 도움을 준다면 좋겠지만 특정 동아리에 높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며 또 다른 이유를 말했다.

박 회장은 학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대에 서지 못한 것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총학생회 예산에 관해 동아리는 잘 모르기에 의견을 먼저 묻고 예산안을 책정하면 좋을 것 같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축제를 준비할 당시 총학은 아티스트 섭외 예산을 먼저 잡고 진행했다. 아티스트 섭외에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가 크고 섭외 과정에서 타협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티스트 섭외 예산을 제외하고 남은 예산으로 동아리 무대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섭외 후 남은 예산이



봉우리 밴드가 2022 ‘천마 축제: 헬러원’에서 공연하고 있다. 올해는 음향 장비가 없어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사진 제공: 봉우리 밴드

120~150만 원대가 되지 않아 봉우리는 무대에 오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지난 축제는 어떻게 공연한 것일까? 지난 축제 때 봉우리는 아티스트(10CM)를 위해 대여한 장비를 함께 사용했다. 따라서 작년 예산에는 음향 장비 비용이 아티스트 관련 예산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작년 예산을 참고해 올해 예산을 책정한 총학은 봉우리에 필요한 장비 비용을 인지하지 못했다. 오 부회장은 “작년 예산을 참고해 예산안을 책정했다. 그 과정에서 봉우리를 위해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의 잘못이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다음 총학생회에 인수인계하겠다.”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멈춘 의사소통과 차량들

총학은 10월 29일 인스타그램 공지를 통해 학우들이 축제 기간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축제 당일이 되자 주차는 무료가 아니었고, 총학은 공지를 삭제했다.

오 부회장은 학교 측과 10월 27일에 만나

무료 주차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학교 측에 지난 축제 때 무료였던 점을 근거로 올해도 무료 주차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학 본부도 학생을 위해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에 공지를 올렸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총학과 학교 측 소통에서 문제가 있었다. 당시 오 부회장은 학교 측에게 주차 무료 대상이 학우 전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축제 관련 차량으로 한정해 이해한 것이다.

결국 축제 첫째 날인 11월 7일 주차 요금 발생했고, 피해 학우들은 해당내용을 총학에 제보했다. 축제 당일까지 오해가 있었음을 파악하지 못한 총학은 주차 요금이 발생했다는 학우들의 제보를 받고 학교 측과 다시 만났다. 상호 간의 오해를 인지한 총학은 학교 측에 다시 전면 무료 주차를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규정에 없는 일이라 해줄 수 없고, 지난 축제가 이례적인 상황이라 말하며 거절했다.

총학은 무료 주차가 불가능한 것을 인지한 후 게시글을 삭제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추가 공지가 없었기에 학우들은 주차가 유료임을 몰랐다. A 학우는 “무료 주차 공지를 보고 차를 가져왔다. 그러나 공지는 없어졌

고 요금을 결제해야만 출차가 가능했다.”라며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오 부회장은 “공지를 빨리 삭제해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삭제 이유를 밝혔다. 삭제 이후 추가 공지는 없었다. 그는 “모든 총학 인원이 축제에 투입돼 따로 대응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추가 공지가 없었다는 것에 분노했다. 이에 총학은 10일,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상황 설명과 함께 사과문

한국체육대학교(주차장)	
35,000 원	
[본인]SMART ANY(스마트 (HANA VISA I	
매입금액	35,000 원
거래일시	2023.11.07

11월 7일, 축제가 끝나고 출차한 A 학우의 요금 영수증이다. 우리 학교 주차장 1일 최대 요금인 35,000 원이 부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제공: A 학우

을 올렸다. 또한, 16일까지 주차 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피해를 본 학우는 6명으로 파악됐다. 총학은 어떤 방식으로든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보상 방안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거친 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초청하지 않은 손님

아티스트 공연 당시 재학생 존에 외부인이 침입했다. 총학이 파악한 외부인은 총 3명이다. 이들은 학생증을 구매해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학생 존에 입장한 외부인은 아티스트 촬영을 위해 대형 카메라를 꺼내는 등 주변 학우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또한 외부인 인 것이 발각됐으나 나가려 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도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공연을 즐기던 B 학우는 “외부인과 학생 간의 몸싸움이 발생했다. 그때, 외부인이 내 어깨를 밀치고 지나갔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오 부회장은 “일차적으로 재학생 존에 외부인이 들어와 축제의 분위기를 흐린 거 같아 죄송하다. 검사를 잘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학생증 사진까지 위조해 들어온 외부인을 잡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결국 학생증을 판매한 소수 학우 때문에 공연을 즐기던 다수의 학우가 피해 봤다. 재발 방지를 위해 오 부회장은 “재학생과 외부인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학생증의 유무다. 그렇기에 학생증을 판매해선 안 된다.”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축제 뒤 피해자들

11월 7일, 아티스트 공연이 끝난 22시 경 찰이 학교에 왔다. 오토동과 방이동 주민 커뮤니티에 소음이 발생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도 올라왔다. 하지만 총학은 10월 24일 학교를 통해 송파구청에 축제 시간 및 일정을 신고했다. 아파트에도 축제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신고가 접수됐으니, 음향을 줄여달라 부탁했다. 이에 총학은 마이크 음향을 줄였다.

주민 커뮤니티에는 “매년 하는 거 참을 만했는데 올해는 너무 심하다.”, “신고를 했다고 참아야 한다는 건가?”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총학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 관계자와 함께 올림픽기자촌아파트에 방문할 예정이다. 그들은 소음 문제에 관해 사과하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백중훈 수습기자 3605a@naver.com

방치된 지하, 무분별한 식당 사용



오전 10시 30분경, ‘콥스켓(Coopsket)’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지하 식당 내부(테이블, 바닥 등)를 청소하고 있다.

사진: 박서진 부장기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학우들의 편의를 위해 메타버스 도서관 지하 1층 식당 일부를 열어두고 있다. 현재 식당은 운영 전이지만(‘지난 276호 3면 참고’) ‘콥스켓(Coopsket)’ 편의점을 이용하는 학우들을 위한 취식 공간으로 사용 중이다. 하지만 식당 관리 및 위생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11월 15일 대학생 커뮤니티 앱인 에브리타임에 ‘누군가 한체대의 미래를 묻거든’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지하 1층 식당을 언급하며 분리수거가 잘 안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익명의 한 학우는 이 글에 댓글을 달아 글쓴이의 의견에 동조하며 청소하지 않는 이들을 비판했다.

‘콥스켓(Coopsket)’ 편의점 관리자는 “일부 학우들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장소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상황을 전했다. 현재 생협은 관리를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오전 9시, 점심 전후로 식당 청소를 하고 있다. 이처럼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식당은 매번 지저분한 상태다.

중종 지하 1층 식당을 이용한다는 주장 호 학우(노인체육복지 20)는 “(지하 1층 식당에) 치우지 않은 테이블이 눈에 많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A 학우는 “쓰레기통이 앞에 있음에도 쓰레기가 테이블에 자주 놓여 있다.”라며 “식당 관리자가 있었지만 테이블에 붙여진 글(청소 요청 내용)을 읽고 다 같이 잘 관리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또, B 학우와 C 학우는 “우선 학우들의(자발적)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테이블을 치우는 관리 인원이 늘어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콥스켓(Coopsket)’ 편의점 관리자는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 공간인 만큼 학부생들도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줬으면 한다. 생협 측 또한 식당 관리를 위해 상시 노력하겠다.”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송차호 수습기자 ckgh1183@naver.com

강의계획서에 없는 중간고사, 당일 아침 시험 공지 후 곧바로 진행

“오늘 중간고사 9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2일 오전 8시 20분경 모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에게 날아든 문자다. 10월 19일 예정돼 있던 중간고사가 일주일 앞당겨졌다. 갑작스러운 당일 아침 시험 공지에 해당 수업을 듣는 학우들은 혼란에 빠졌다.

수강생들이 불만을 품은 건 ‘당일 시험 공지’다. A 교수는 10월 12일 아침, 10월 19일로 공지했던 중간고사 날짜를 당일로 변경했다. C 학우는 “정확하지 않은 통지로 수강생들에게 혼란을 준 점이 아쉽다. 수강생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뜻을 내비쳤다.

당일 시험 공지가 규정상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강의계획서 일정에 없는 중간고사 실시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대학은 “중간시험은 학기 중간에, 기말시험은 학기 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실시 여부, 실시

방법 등은 교과 담당 교수 재량에 의한다.”라고 학칙 제10장 7조 2항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에 관해 수업학적팀 관계자 D는 “학칙 상으로 확인할 수 있듯, 시험실시 여부뿐만 아니라 일시 선택도 교수의 재량이다.”라고 설명했다.

수강생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E 학우는 “시험실시 여부와 일시 선택이 교수님 재량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스스로 전달한 내용(시험일을 10월 19일로 공지한 것)을 지켜야 학생들이 혼란을 빚지 않는다.”라며 당일 시험 공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B 학우 역시 “시험 일정 수립에 관한 사항이 전적으로 교수 재량임을 존중한다. 이는 학칙에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교수도 수강생들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한다. 강의계획서에는 중간고사가 있는 주차가 없었다. 또한 갑작스러운 당일 시험 공지로 인해 수강생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시험에 대한) 교수 재량권을 존중하지만, 이번 일은 잘못됐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A 교수와 인터뷰하고자 여러 차례 설득했으나 끝내 그는 거절했다.

이세은 수습기자 sae_un@naver.com

제7회 KNSB 방송제 성황리에 마무리



방송제를 시작하기 전, 방송국원들이 학우들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 이선우 기자

제7회 KNSB(한국체육대학교 방송국) 방송제가 11월 14일 본관 1층 합동강의실에서 열렸다. 약 90명의 학우가 참가한 이번 방송제는 ▲2033 한체대 ▲스무고개 ▲KNSB 오피스 ▲큰물(큰수에게 물어봐) 순으로 영상

을 상영했다. ‘2033 한체대’는 10년 뒤 한국 체대의 모습을 비추며 물가 상승과 길었던 공사를 풍자해 웃음을 자아냈다. 방송국원들의 어릴 적 꿈을 소개한 ‘스무고개’는 관객 참여형으로 기획돼 관심을 끌었다. 이어 ‘KNSB 오피스’로 MZ세대의 공감대를 형

성하고, ‘큰물’로 학우들의 웃음을 이끌어 내 호평받았다.

제10대 방송국장 서승덕 학우(노인체육복지 20)는 “제7회 방송제 ‘NOVEMBER REMEMBER’가 성황리에 종료돼 기쁘다. 참석해 주신 관객분들께 감사하다. 정말 열심히 이번 방송제를 준비했다. 학우들이 온전히 즐기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컸다.”라고 전했다. 이후 “하나부터 열까지 국원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데가 없다. 미숙한 점도, 고쳐야 할 점도 있겠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국원들 덕분에 큰 차질 없이 행사가 마무리됐다.”라고 말했다.

이날 임기성 총학생회장(사회체육 19)도 방송제를 찾았다. 그는 “방송국원끼리의 끈끈한 모습이 보기 너무 좋았다. 방송국의 기획 능력에 감탄했다.”라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박진영 학우(운동건강관리 19)는 “(졸업을 앞둔) 마지막 방송제 관람인데,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거 같다. 방송국에서 하나 하나 신경 써서 준비한 게 보인다.”라는 말로 방송국에 감사를 표했다.

이선우 기자 sunwoolee4747@naver.com

첫발을 댄 노인체육복지학과 세미나



조우선 대표가 강연 후 학우들에게 보디빌딩 포장을 보여주기 위해 웃을 뱃었다. 사진: 한지용 편집장

제1회 노인체육사회복지 세미나가 11월 2일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세미나는 노인체육복지학과가 주최하고 제17대 노인체육복지학과 ‘동행’ 학생회(회장 이경진)가 주관했다. 이번 행사에 학생 42명과 학과 소속 김예성 교수, 박채희 교수, 전혜상 교수가 참석했다.

이경진 학생회장(노인체육복지 18)의 개회사와 김예성 노인체육복지학과 학과장의 축사가 세미나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조우선 대표(NSK 컨설팅)가 ‘시니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연을 마친 후 그는 “세미나에 초청받게 돼 큰 영광이다. 노인체육을 전공하는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이 건강해지는 날까지 연구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강연 이후 재학생과 졸업생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지희(노인체육복지 20) 학우와

이금호 동문(노인체육복지 08)의 ‘노인체육을 통한 복지 실현’ ▲장재인 학우(노인체육복지 20)와 김인우 동문(노인체육복지 11)의 ‘복지 현장에서의 노인체육’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가 끝난 후 김지희 학우와 장재인 학우 모두 학과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던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경진 학생회장은 “그동안 학과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랐다.”라고 세미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성 교수(노인체육복지 학과장)는 “노인체육복지학과는 융합학과다. 그래서 노인체육과 사회복지 중 어떤 것이 주요한가에 대해 학생들의 고민이 컸다. 이 자리를 통해 논의할 수 있어 좋았다.”라며 세미나를 개최한 학생회에 격려를 보냈다.

이세은 수습기자 sae_un@naver.com

현장에서 실용적인 운동과학 지식을 소개합니다 제13회 운동건강관리학과 학술제



11월 15일 이강한 학우(레저스포츠산업 19)가 운동건강관리학과 학술경연대회에서 기계적 장력 이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세은 수습기자

제13회 운동건강관리학과 학술제가 11월 15일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현장에서 유용한 운동과학지식’을 대주제로 열린 학술제에는 발표자 15명 등 총 55명이 참석했다.

경연은 ▲SM팀(임지훈, 정원기, 이태규, 홍연진 학우) ▲Hypertrophy팀(이강한, 진진, 박지현 학우) ▲평균 1.8학년팀(오정현, 김준기, 이수민, 조하민, 정시훈 학우) ▲3S팀(김수빈, 이영서, 조수현 학우) 순

으로 이어졌다. Hypertrophy팀이 ‘기계적 장력 이론을 토대로 한 최적의 보디빌딩 운동법’에 대해 발표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발표 학생들을 응원하고자 방문한 전유정 운동건강관리학과 교수는 “작년에 참관했을 때 학생들의 뛰어난 기량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도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협력해 발표하는 걸 보며 교수로서 뿌듯한 심정을 느끼고 돌아간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학술경연대회를 주관한 구정훈 운동건강관리학과 학과장은 “학술대회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해 빛내주길 바란다.”라며 “타과 학생들도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향후 다른 학과 학생들의 참여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세은 수습기자 sae_un@naver.com

한국체대 × 경희대 연합, 라크로스 대학리그 출전 ‘다시 떴는 발걸음, 무한한 가능성’

우리 대학 라크로스 동아리 ‘KNSU_lax’와 경희대학교로 구성된 라크로스 연합 팀(이하 ‘연합 팀’)이 10월 29일 용인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라크로스 대학리그 남자부에서 2위를 기록했다. 우승은 최종 순위 결정전에서 연합팀을 0-6으로 이긴 한국의국어대학교 HUFs MADDogs에 돌아갔다.

이날 우수선수상을 수훈한 김성현 학우(스포츠청소년지도 23)는 “(최종 2위가) 경

희대와 연합해 만든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지 않나 생각한다. 훌륭한 동료들 덕에 운 좋게 우수선수상을 받았다.”라며 자세를 낮췄다.

한편, KNSU_lax는 내년 초 개최될 ‘한국 라크로스 인도어 리그 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2학기 창단한 신생 동아리지만 국가대표 코치의 지도하에 전문적인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

송차호 수습기자 ckgh1183@naver.com

‘최초에서 최고로’, 사회체육학과 체육대회



사회체육학과 학우들이 11월 15일 학과 체육대회에서 전략 줄다리기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백종훈 수습기자

사회체육학과 체육대회가 11월 15일 오후 본관 핸드볼장에서 개최됐다. 제34대 ‘커넥트(connect)’ 학생회(회장 김규현)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는 35명의 사회체육학과 학우가 참여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김규현 학생회장(사회체육 19)의 개회사로 시작해 ▲전략 줄다리기 ▲사면피구 ▲점수판을 맞춰라 ▲장애물 이어달리기 ▲팀별 계주 순으로 진행됐다. 이동현 학우(사회체육 23)는 일정이 모두 끝난 후 “무작위로 팀을 구성해 몰랐던 학과 선배들을 알게 되어 좋았고,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신선한 종목을 해서 재밌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김 회장은 “어느덧 1년의 마지막을 향하게 되는데 학우들끼리 가까워진 것 같아 뿌듯하다.”라며 “대회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는 학과장님과 학생회 인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백종훈 수습기자 3605a@naver.com

한국체육대학교 유도 동아리 ‘한판’, 강서구를 제패하다

한국체육대학교 유도 동아리 ‘한판’이 10월 28일 가양 레포츠허스 대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강서구회장배 유도대회에서 메달을 휩쓸었다. 남자 단체전 1위, 여자 단체전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남자 -81kg급에서는 유민균 학우(사회체육 23)가, 여자 -57kg급에서는 윤지민 학우(특수체육교육 23)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단체전 결승 상대는 중앙대학교였다. 서로 주도권을 주고받는 흐름 끝에 3-2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어 열린 여자 단체전에서도 강호들을 누르고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남자 -81kg급 결승에 나선 유민균 학우는 임수현 선수(한양대학교)를 만나 빗맞게 치기 기술로 절반을 따낸 후 곧바로 굳히기 기술에 성공하며 경기 시작 23초 만에 승리를 거뒀다. 경기가 끝난 후 그는 “이번이 두 번째 참가한 대회다. 평소 연습을 많이 한 빗

당겨치기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승리 요인을 풀었다.

윤지민 학우는 김다예 선수(한양대학교)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주특기인 굳히기 기술로 여자 -57kg급 금메달을 차지했다. 윤 학우는 “예선과 결승 모두 굳히기 기술을 적용해 1위를 차지했다. 연장전까지 갈 만큼 간절했던 경기라 우승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판’ 훈련은 체육학과 유도부 학우들의 지도로 진행된다. 또, 매달 타 대학 유도 동아리들과 연합훈련을 펼친다. 이 같은 체계적 훈련에 힘입어 ‘한판’은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

‘한판’ 회장 강가람 학우(운동건강관리 18)는 “부원들이 자랑스롭다.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최은진 수습기자 cejinckd@naver.com

한국체대 로고, 개인의 상표가 되지 않게



학우들이 한국체대 로고가 들어간 의류를 입고 있다. 보통 각 학과나 동아리, ‘에브리타임’에서 진행되는 공동구매를 이용한다. 사진: 김채람 수습기자

우리 대학은 공식 의류 구매처가 없어 학생 개인이 주도해 공동구매가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진행되며, 한 번 열릴 때마다 평균 200명의 학우가 이용한다.

한국체육대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 타 대학 공동구매를 찾아본 결과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2020년 서강대학교는 공동구매를 진행한 외부 업체에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우리 대학의 실정은 어떤지 묻고자 학교 상표권을 담당하는 산학협력단을 찾았다. 이들은 “의류에 (허가 없이) 학교 로고를 넣는 것은 무단 로고 사용이 될 수 있다. 다만, 우리 학교 학생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규제 범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리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 승인받은 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동구매 진행자 중 한 명인 이준형 동문(노인체육복지 16)은 “의류 제작 업체 ‘벤토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체대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품목당 약 10%의 수익을 내는 중이다. 얼마 전 영리적 로고 사용에 대해 허가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라며 “현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식으로 승인되면 더욱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채람 수습기자
kimchaeram1121@naver.com

천마 생활관, 빈대 방역 완료



11월 11일에 방역 업체에서 천마 생활관 빈대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제공: 천마 생활관

천마 생활관(이하 ‘생활관’)은 10일부터 12일까지 빈대 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생활관에 따르면, 이는 정부의 권고로 시행된 일이다. 8일 교육부가 우리 대학에 빈대 방역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번엔 응하지 않고 차후 빈대가 발생할 경우, 방역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학교가 감당해야 한다.

생활관은 방역을 요청받자마자 원활한 점검을 위해 생활관 운영 임시 중단 결정을 내렸다. 그와 동시에 학생들에게 방역 일정을 공지해 3일간 짐을 뺄 것을 안내했다. 생활관 박주원 주무관은 “상황이 급박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학생들에게 공지하려고 노력했다. 이번 방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방역은 생활관 침대 매트리스와 벽면에 살충제를 뿌리고 곳곳에 트랩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생활관생 제영오 학우(체육 22)는 “생활관 측에서 발 빠르게 빈대 방역에 대처해줘서 고맙다. (공지일로부터 짐을 빼야 하는 날짜까지) 조금 압박한 감은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unwoolee4747@naver.com

메타버스 도서관 7층 활성화 진행 중, 새 서가 비치

10월 30일, 한국체육대학교 메타버스 도서관 7층에 서가(책장)가 새로 들어왔다.

그간 메타버스 도서관은 7층을 휴식 공간으로 운영했다. 독서 공간으로 이용한 8층 서가에만 2만여 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었다.

신설된 7층 서가에 최종적으로 비치할 도서는 1만 4천여 권이다. 현재는 목표량의 약 20% 정도가 책장을 메우고 있는 상태다. 추가적인 도서 구매 및 보존 서고 개방을 통해 점차 개수를 늘릴 예정이다.

이번 서가 구비는 7층 활성화 계획의 일부다. 학술정보원 정보관리팀 강원석 행정주

사는 “현재 8층에 비해 7층을 이용하는 학우가 적다. 해당 층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새롭게 서가를 배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메타버스 도서관 7층을) 8층과 차별화하기 위한 여러 편의시설 확충을 염두에 두고 있다. 7층만의 정체성을 키워 해당 층 이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학우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수시로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Q&A를 살핀다. 앞으로 더 많은 학내 구성원이 메타버스 도서관을 찾아주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했다.

박서진 부장기자 psj3158gh@naver.com

수시 실기 첫 전자측정 도입



오론관 핸드볼장에서 새로 도입된 전자 측정 장비로 ‘메디신볼던지기’ 실기고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김세준 조교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된 2024학년도 생활체육대학 수시 실기는 ▲10m왕복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메디신볼던지기 ▲100m달리기 종목이 전자 측정으로 개편되는 변화를 겪었다. 또한 2분윗몸일으키기가 전면 폐지되고 메디신볼던지기가 추가됐다.

이중 주목해야 할 사항은 ‘전자 측정 장비’ 사용이다. 본교는 5월 26일 학교 대학 입시 홈페이지 - 수시 모집 요강에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알람’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입시생에게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다. 작년과 동일하게 제자리멀리뛰기 종목은 ‘신발 뒤꿈치에 ‘탄산마그네슘가루’를 찍고 실시합니다.”라고 돼 있다. 해당 문장은 우리 대학이 전자 측정 기기 없이 제자리멀리뛰기 종목을 실시한다는 걸 나타낸다.

하지만 같은 문서 29쪽을 살펴보면, ‘실기고사 일반 원칙’에서 전자 측정 기기 도입 가능성이 언급하고 있다. “종목별 실기고사에 전자 측정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실기고사 실시 전에 시행하는 담당 감독관의 실기고사 실시요령 안내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라고 첨부했다. 이를 본 A 입시생은 “5월에 올라온 공지는 센서 사용 여부에 대해 모호하게 올라와 있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웠다.”라고 말했다.

전자 측정 공지가 확정된 것은 실기고사를 약 20일 남겨둔 10월 12일이다. 입시학생팀은 대학입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감독관이 직접 기록을 측정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전자장비를 이용해 일부 종목의 기록을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늦은 공지에 A 입시생은 “수시 실기가 1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센서를 사용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입시학생팀 서동화 팀장에게 전자 측정 장비 확정 공지가 늦어진 이유를 묻자, “전자 측정 장비 도입을 일찍이 확정했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 발전 기금을 후원받았다. 9월에 공개입찰 후, 10월 초에 납품이 됐다. 이후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확정 공지를 올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빠르게 학생들에게 공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전자 측정 장비 도입이 어려워진다면 학생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어서 신중히 (10월에) 공지를 올렸다.”라고 덧붙였다.

서 팀장에게 전자 측정 장비 도입 계기를 물었다. 그는 “가장 큰 이유는 실기고사의 공정성과 측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다. 또한, 예전 실기고사 방식은 한 종목에 다수의 측정위원이 투입됐다. 인력 관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수시 실기고사 당일 입시를 치르고

나온 B 입시생은 “작년에도 한국체대 실기에 응시했었다. 그때 발에 탄산마그네슘 가루를 바르고 제자리멀리뛰기를 뛰었다. (자국을 보고) 기록을 불러주는 방식이라 신뢰도가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센서로 측정해 기록을 바로 알 수 있어 좋았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자 측정 장비 도입이 낳은 문제점도 있다. 수시 실기 도우미로 들어갔던 장주영 학우(운동건강관리 23)는 “새로 도입된 메디신볼던지기는 센서 오류가 많아 여러 번 다시 던지는 학생들을 봤다.”라고 전했다. 또, 특수체육교육과 수시 실기고사를 치른 C 입시생은 “옆 종목 출발 소리랑 겹쳐 들려 파울을 받았다. 여러 명이 똑같은 일로 파울을 받고 실격당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 팀장에 따르면 전자 측정 장비 도입 후 입시학생팀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다. 그러나 입시생들의 반응을 확인한 그는 “옆 종목과 출발 신호 소리가 겹치는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다. 정시 실기고사 때는 종목 간 간격을 더 넓게 조정하고, 가림판을 추가로 설치해 문제점을 철저히 수정하겠다.”라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밝혔다. 덧붙여 “공정하고 투명한 실기고사를 위해 더 힘쓰고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선우 기자 sunwoolee4747@naver.com

천마 생활관 화재진압 : 우리 곁 영웅들 최창희 학우 “두려움보다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이었다”

10월 29일 18시 18분경, 천마 남자 생활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은 자판기 콘센트 과부하(정격 전압 초과)였다. 그러나 화재경보기는 울리지 않았다. 최창희 학우(체육 단거리 22)의 신속한 대처 덕이었다.

석식을 먹은 뒤 생활관으로 이동 중이던 최 학우는 무언가 타는 듯한 냄새를 맡았다. 그와 동시에 오전 즈음 7층 남자 생활관 자판기 뒤편 멀티탭에 전선 코드가 끼여있던 것이 생각났다. 자판기 쪽에 가보니 작게 불이 나고 있었다. 생활관 사람에게 연락 후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이윽고 불길이크게 번지자, 생활관에 배치된 소화기를 가져와 직접 화재진압에 나섰다. 이후 18시 28분에 김택성 사감과 천마 생활관 운영사 ‘엘림비엠에스’ 박형삼 주임이, 18시 32분에 박주원 주무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들은 먼저 세탁실에서 자판기로 이어지는 코드를 제거하고 세탁실 전원을 수동으로 전환했다. 이어 곧바로 화재 현장 조사에 나서며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2구 콘센트 소실과 3.3kg 수동식 분말소화기 소진이라는 경미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박주원 주무관은 “(화재 발생 후) 5분에서 10분이면 해당 층이 불길로 뒤덮였을 것이다. 600여 명이 지내는 생활관에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라며 최 학우의 신속한 대처를 치켜세웠다.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냐는 물음에 최 학우는



최창희 학우가 화재가 발생한 7층 남자 생활관 자판기 앞에서 당시 진압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 제공: 본인

“불길이 번졌을 때 많이 당황했다. 그러나 ‘지금 끄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더욱 침착해졌고, 겁먹지 않았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때를 대비해 (생활관 구성원들이) 미리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사고 역시 소화기 사용법을 알고 있었다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화재의 책임은 BTL 운영사(자판기

관리 운영사) 측에 있다. 자판기 설치 과정에서 전격 용량에 맞지 않는 콘센트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화재 발생 사후 보고서에는 ▲전원코드 전기 절연저항 측정 ▲전원선로 자판기와 세탁기 분리 ▲신품 소화기 구매 후 배치 ▲화재 예방 및 대처 교육의 조치 계획을 내세웠다. 현재 생활관 내 모든 자판기에 대한 절연저항 측정 검사를 마쳤고, 2층 남자 생활관 자판기에서도 이상이 발견돼 전기시설을 수리하고 부품을 교체할 예정이다.

송차호 수습기자 ckgh1183@naver.com

높아진 불안, 낮아진 집중력

성인 ADHD의 문제점

평소 A 학우는 등교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려 지각하는 일이 잦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자꾸 딴생각이 난다. 일정이나 계획을 까먹고 미루다가 과제를 제출하지 못할 때가 많다. 시험이 코앞이지만 책을 펼쳐도 집중이 안 된다.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혼자 생각하는 걸 좋아해 회식 자리에서 늘 조용하다. 반대로 중요한 행사나 대회에서는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해 사람들로부터 부산스럽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A 학우는 어렸을 때부터 ‘ADHD(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를 의심받았다.

김채람 수습기자 kimchaeram1121@naver.com

ADHD란 무엇일까?

ADHD란 집중력이 부족해 산만하고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간단한 자가 진단을 통해 ADHD 성향 보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송파드림정신건강의학과 강준모 원장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여섯 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자주 그렇다’까지 총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 중 검게 칠해진 부분이 네 개 이상 체크된다면 ADHD를 의심할 수 있다.

아래 질문을 읽고 오른쪽의 평가 기준에 맞춰 답하십시오. 질문에 답하실 때는, 지난 6개월 동안 귀하가 어떻게 느끼고 행동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칸에 x표 하십시오.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1	어떤 일의 어려운 부분은 끝내 놓고,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해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2	체계가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3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4	골치 아픈 일은 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까?					
5	오래 앉아 있을 때,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꼬지락거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6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혹은 멈출 수 없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송파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제공한 ADHD 자가점검표다. 본인이 ADHD 성향을 갖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출처: 송파정신건강의학과

더이상 어린이들만의 질환이 아니다



한국체대 학우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창을 한 번에 띄워놓고 있다. 사진: 김채람 수습기자

면, 현재 연령대별 ADHD 유병률은 ▲20대 7.7% ▲30대 3.1% ▲40대 1.3% ▲50대 1.0% ▲60세 이상 1.1%로 20대가 가장 높다. B 학우는 “수업 중 멍때리거나 계속해서 다리를 떠는 등 부주의한 학생을 쉽게 볼 수 있다.”라며 과거에 비해 ADHD 성향을 가진 사람이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성인 ADHD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1)박원명, 우영섭. (2023). 전국적 규모 집단 표본 대상 성인 ADHD 유병률 및 동반질환 연구 발표. 임상 정신약물학 및 신경과학(Clinical Psychopharmacology and Neuroscience, IF 3.2).

20대에겐 더 큰 문제

A 학우는 비대면 수업 땀 영상 강의를 틀어 놓기만 하면 대부분 출석이 인정돼 성적 관리가 쉬운 편이었다. 그러나 작년 2학기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며 출석을 인정받는 것이 힘들어졌다. 바쁘게 등교 준비를 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할 때가 많다. 분주한 일상에 지각과 결석이 잦아지자 대면 수업 전환 후 약 4.2점이었던 학점은 2.8점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ADHD 성향은 대학생인 우리의 학업 성취를 저하할 수 있다. 인재개발원 안계한 심리상담사는 “학습 중 집중력이 분산되는 것은 감각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이다. ADHD 환자는 스스로 이완을 통한 안정 상태를 만들지 못한다. 긴장된 감각은 과잉 행

동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러한 주의력 부족이 대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도 전했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경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기 쉽고 자신감이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사회성을 길러야 하는 20대에게 큰 걸림돌이 된다.

또한 ADHD 성향이 있으면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A 학우는 한 번에 여러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 어떤 순서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 교수는 “ADHD를 겪는 사람은 판단과 결정, 인내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집중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신경전달물질이 부족해져 각성이 덜 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충동적인 성향을 띄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ADHD는 쉽게 불안과 무력감을 느끼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ADHD 환자의 우울증 발병 위험은 일반인 대비 12배 높고 치매 위험은 3배 높다. 증상의 정도가 심해질 경우, 외바와의 접촉 단절로 고립돼 살아가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불안 또는 치매와 같은 2차 질환을 부르기 쉽다. 안 상담사는 “ADHD를 겪는 학생들을 보면 무기력하거나 희망감이 없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불안을 호소하는 ADHD 환자가 늘었다. 불안감은 작은 사건에 초조해하고 쉽게 포기하는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ADHD 환자 다수가 정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선수가 많은 우리 학교에는 ADHD 증상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2년 발표된 ‘성인 ADHD 성향이 수행전략에 미치는 영향: 대학 운동선수를 대상으로’라는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운동선수에게 불안과 심리적 요인을 관리하는 것은 훈련 및 시합 상황에서 경기력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계명대학교 스포츠심리학 인지행동상담사 수련감독 김중수 조교수를 만났다. 김 조교수는 “성인 ADHD 성향이 있는 선수는 스스로 객관화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쉽게 불안감을 느껴 그것이 경기 결과를 좌우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메타 인지(Meta cognition,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

분할 수 있는 능력)’를 길러줄 수 있는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13년 태릉선수촌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ADHD 실태를 조사한 결과, 증상이 있는 선수는 그렇지 않은 선수보다 공감 능력과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다. 국가대표 선수 또한 주의력결핍 시 경기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ADHD는 운동선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최은혜라, 이창형, 김태규, 김성수. (2013). 국가대표 선수들의 ADHD 실태와 이들의 공감능력 그리고 자존감과의 연관성 조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2권 제3호.

	ADHD 성향 여부	점수
정서적 공감	ADHD 비성향군	24.42
	ADHD 성향군	22.00
자존감	ADHD 비성향군	36.25
	ADHD 성향군	32.86
	ADHD 성향 여부	점수
정서적 공감	고경향 집단	21.55
	저경향 집단	25.37
	고경향 집단	31.73
자존감	저경향 집단	37.96

2013년 태릉선수촌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ADHD 실태 조사 결과, ADHD 성향이 강할 수록 정서적 공감능력과 자존감 점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최은혜라, 이창형, 김태규, 김성수. (2013). 국가대표 선수들의 ADHD 실태와 이들의 공감능력 그리고 자존감과의 연관성 조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2권 제3호.

기자생각

상담부터 한 걸음

일상에 불편함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ADHD를 방지하는 건 위험하다. 앞서 밝힌 여러 문제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ADHD가 의심된다면 병원에 방문해 진단 후 치료받아야 한다. 병원 치료가 어렵다면 상담과 인지치료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다. 안 상담사는 “과잉으로 활성화된 행동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약물 치료 외에 상담을 통해 산만한 주의를 이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우리대학 인재개발원은 상담 교육을 이수한 학생 상담자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우들과 소통하는 ‘KNSU-마음지기(또래 상담자)’ 등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스스로 ADHD 증상이 있다고 생각해 해결하고 싶다면 한 발짝 용기를 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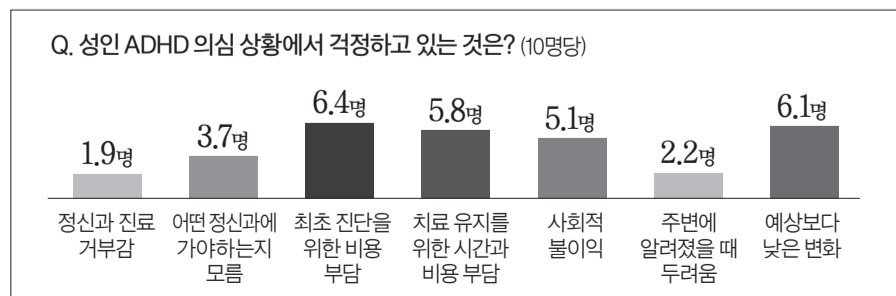
까다로운 치료

그러나 스스로 ADHD임을 인식하는 것은 어렵다. 통상 ADHD는 아동 청소년기에 발생해 성인이 되면 증상이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ADHD가 의심된다 해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김 조교수는 “성인 ADHD의 증상대에 대해 잘 모르거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신의학과에서 치료나 상담을 받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C 학우는 “요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범죄자나 사건이 많이 전해져 ‘정신질환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생겼다. 이 때문에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도 병원 방문을 꺼리고 증상을 알리기 싫

어하는 것 같다.”라며 한국 사회는 정신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조교수는 “우리나라에선 ADHD를 심각한 정신병이나 장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다가 치료받지 못하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과정이 순탄치 않다. 강 원장은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 단기간에 완치하기는 어렵고 2,3년 이상의 시간이 든다.”라며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간 약물 치료로도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자에게 정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나 학습치료까지 병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A 학우는 “치료를 받으려 해도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 주저하게 된다. 치료 과정이 복잡하고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는 점도 힘들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와 국내 최대 성인 ADHD 환자 커뮤니티 에이엠(A-app)이 공동으로 성인 ADHD 자가 또는 의심자 대상 900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시간 및 비용 소요를 주로 걱정하고 있다.

콜 포비아, 질병이 아닌 시대적 흐름이다

‘콜 포비아’. 전화 통화를 할 때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알바천국이 10월 31일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MZ세대 10명 중 3명은 콜 포비아 증상을 겪는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과 메시지의 발달이 주원인이며 해당 시기를 거친 MZ세대에 흔히 나타난다. 그들의 소통 방식은 모바일 메시지가 주류다. MZ세대가 모바일 메시지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소통은 원활한지, 기성세대인 X세대는 MZ세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자.

강현석 기자 fcnx000@naver.com

모바일 메시지가 편해요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MZ세대에 해당하는 한국체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전화와 모바일 메시지 중 주로 이용하는 소통 수단과 그 이유, 소통량에 대해 질문했다. 전체 응답자 50명 중 46명이 메시지를 통한 소통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편리하고 익숙하다.”, “생각을 거친 후 답할 수 있다.”, “여유롭게 답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소통 시 전화를 선호한다는 학우는 단 4명뿐이었다. 그들은 “직접 소통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없어서.”, “급한 내용일 때 즉각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소위 말하는 ‘혼족(혼자 사는 사람들)’ 현상도 콜 포비아의 원인으로 꼽힌다. 인간관계에 편태를 느낀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남에 따라 음성통화 등 연락 자체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핸드폰 스크린 타임(핸드폰 사용 시간)은 주 단위 하루 평균 약 6시간이다. 그중 모바일 메시지 평균 사용 시간은 약 3시간이다. 결코 소통량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본교 학우들(MZ세대) 대상 설문 결과다. 전화와 모바일 메시지 중 선호하는 소통 방식에 대한 비율(좌)과 주 단위 하루 평균 휴대폰 사용 시간(중), 모바일 메시지 사용 시간(우)이다. 하루 평균 휴대폰 사용 시간의 절반을 모바일 메시지가 차지하고 있다.

세대차이가 아니다

X세대의 소통 방식은 어떨까? X세대에 속하는 한국체대 백진국 교수, 김옥희 전(前) 교수, 김수잔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백진국 교수는 선호하는 소통 방식에 있어 “대면 소통을 가장 선호한다. 대면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로 전화로 소통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면 소통은)상대와 얼굴

***MZ세대: 1980년생부터 1990년대 초중반생인 M세대와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생인 Z세대를 묶어 부르는 표현**

***X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후, 1960년대 중후반에서 1970년대 후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 표현**

을 마주 보고 표정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으며, 텍스트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을 전달받을 수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같은 맥락으로 전화는 상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대면 소통과 가장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에 메시지보다 전화를 선호한다.”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메시지의 복잡한 기능이 세대 간

소통 방식에 차이를 만들진 않았을까? 이에 대해 김옥희 교수는 “모바일 메시지에 복잡한 기능이 생기더라도 대화 자체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없다.”라고 답했다. 뒤이어 김수잔 교수는 “카카오톡의 경우 단체톡방으로 소통 가능하며 투표 및 공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에 편리하다.”라며 오히려 신기능에 적응한 모습을 보였다. 또 “다양한 이모티콘과 선물하기 기능으로 색다르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소통 방식에 있어 두 교수 모두 모바일 메시지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김옥희 교수는 “전화는 가족을 제외하면 거의 하지 않는다. 만일 통화가 필요한 경우 문자로 가능한 시간대를 먼저 물어본다. 상대가 하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메시지의 장점에 대해 “메신저는 충분한 생각을 거친 후 대화가 가능하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찾아본 후 답장할 수 있다. 그렇기에 소통 수단에 있어 메시지는 부담이 적고, 여유로운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소통 방식의 차이는 동세대 간에도 나타난다.



우리 대학 학우들이 각자 강의실에서 전화와 메시지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 강현석 기자

정돈되고 신중한 대화의 수단

앞서 제시한 알바천국 설문조사에 의하면, MZ 세대가 모바일 메시지 이용을 선호하는 이유로 “(전화는) 생각을 정리할 틈 없이 바로 대답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화는) 생각한 바를 제대로 말하지 못할 것이 걱정된다.”, “문자, 메시지 등 비대면 소통이 훨씬 익숙하다.”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앞서 제시한 세 개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MZ세대와 X세대는 ‘각자 편한 방식’으로 활발히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소통량이 비교적 많은 학생들에게 보다 명확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 대학 스포츠산업학과 ‘도로서’ 학생회 박원희 학우(스포츠산업 21)와 동대신문 원지우 기자의 이야기다. 두 학생 모두 소통 수단으로 메시지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박원희 학우는 “통화 시 즉각 대답이 요구되므로 해야 할 말이 모두 정리된 후에 대

화가 가능하다. 반면 메시지는 대화 도중 생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보낼 수 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화 또한 급한 용건, 빠른 대답이 필요할 때 유용한 수단이다. 처한 상황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소통 수단이 다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원지우 기자는 “전화의 경우 대화가 빠르게 이뤄져 생각지 못한 말실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중요한 전화를 할 때는 실수를 방지하고자 노력한다며 “전화를 걸기 전 대본을 미리 정리한다. 통화 상황에서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도 생각한다. 그렇기에 세심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그들에게 정돈되고 신중한 대화의 수단으로서 메시지가 존재한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사람들이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출처: gettyimagesbank

콜 포비아, MZ세대 만성 ‘질병’?

과연 콜 포비아에 대해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문화융합학회가 발행한 ‘문화와 융합’ 학회지 *논문 연구 책임자였던 우리 대학 김인수 교수를 찾았다. 우선 김인수 교수는 ‘포비아’라는 용어에 관해 설명했다. “포비아(Phobia)라고 한다면 어떤 것에 대한 비합리적 공포를 느끼는 등 정신, 신체적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에서 말하는 콜 포비아란 전화와 메시지의 차이를 논하는 것이다. 단순 소통 방식의 차이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콜 포비아는 정신병리학적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서 민원을 담당했던 지인이 있다. 휴직한 상태지만 전화 소리만 울리면 정서적으로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이 정도 증상은 왜야 ‘포비아’라는 이름표가 붙을 수 있다.”라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콜 포비아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 “콜 포비아는 그저 트렌디한 용어일 뿐 달라진 사회에 적응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을 경험하며 온 국민이 소통 방식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통장도 메시지를 통해 개설 가능하며, 코로나 19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케 됐다. 이에 김인수 교수는 “대면 접촉의 우려로 늘어난 무인점포는 코로나19 이후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

“
메신저, 이전
사회적 흐름
”

지만 그렇지 않다. 기술의 발달도 비대면과 메시지 사용을 장려한다.”라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전화는 직접 상대방 목소리를 듣는 등 대면 활동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메시지도 이모티콘이나 여러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능력이 충분히

다.”라며 메시지의 역량에 대해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언제든 연결 가능한 상태이기에 일종의 소속감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전화나 대면 활동의 장점으로만 언급되던 것이 메신저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며 메시지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인수 교수는 “각 세대가 경험해 온 문화가 다르기에 어느 정도 어색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X세대는 코로나19 이후 양식이 삶의 5분의 1이라 했을 때, MZ세대는 평생의 절반 정도라 표현할 수 있다.”라며 예시를 들었다. 이어 “현재 과도기를 지나고 있으며, 사회 변화에 따라 선택 가능한 옵션이 생긴 것이다. 옳고 그름 없이 전화, 메시지 모두 동등한 소통 방식이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1)홍성연, 김인수. (2022). 신입생 대학 적응 요인에 대한 메타 분석. 한국문화융합학회지 제44권 제3호.

기자생각

현대 사회에 필요한 덕목, 이해와 존중

MZ세대는 모바일 메시지의 발달과 전례 없는 비대면 상황을 겪은 세대다. 문화가 급변함에 따라 이들에겐 사회성 부족, 소통 단절 등 많은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 그에 따라 MZ세대를 비꼬는 밈(Meme, 유행어)도 생겨났다.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긴 것이다. 앞서 김인수 교수가 말했듯, ‘콜 포비아’는 정신병리학적 질병이 아니다. MZ세대라는 이유만으로 문화의 차이가 ‘잘못된 것’으로 인식됐다. 마치 MZ세대의 소통 방식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위 교수님들(X세대) 간에도 선호하는 소통 방식이 다르듯, 각 수단의 장단점과 세대 간 편한 방법이 있는 것이다. 콜 포비아라는 이름표가 꼭 붙어야 했을까? 세상은 끝없이 변화한다. 삶의 양식 또한 발맞춰 형태를 달리할 것이다. 이에, 세대 간 이질감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럴 때마다 변화를 인정하고 ‘다름’과 ‘틀림’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게 존중과 그들의 방식에 확신을 심어주자.

진로 고민 상담소 : 창업 편

야! 너도 체대 나와서 창업할 수 있어!

‘샐러바웃’ 대표 심재경 동문(사회체육 11)과 ‘FLAB(Fitness LAB)’ 대표 정진훈 동문(레저스포츠 15)을 만났다. 이번 달 진로 고민 상담소에서는 시선을 달리하고자 한다. 스스로 우리를 취업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다. 학우 여러분도 얼마든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올해 마지막 진로 고민 상담소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또 다른 길을 준비하는 학우들을 위해 창업에 도전한 동문들의 이야기를 준비했다.

최은진 수습기자 cejinckd@naver.com

샐러바웃 대표 심재경 동문(사회체육 11) “한계 없는 도전, 1등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Q. 샐러바웃 대표님이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샐러바웃은 샐러드와 포케, 샌드위치, 그릭요거트 등 건강한 음식을 빠르게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저는 샐러바웃 창업을 원하는 예비 가맹점주님들을 모집하고 가맹비, 교육비 등 브랜드 사용에 대한 요금을 받고 샐러바웃 가맹점의 개점을 허가하는 가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Q. 체육대학교 졸업 후 샐러드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졸업 후 트레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저 역시 몸을 관리해야 했기에 챙겨 먹던 레시피 위주로 자연스레 건강식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원가에 비해 비싼 가격을 보고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샐러드 혹은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자가 브랜드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건강에 대한 키워드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리라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샐러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했습니다.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저렴하며 건강한 패스트푸드를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구체화해 샐러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Q. 창업하실 때 초기 자본은 얼마나 필요했나요?

A. 창업 전에 2년 간 트레이너로 일하며 4,000만원을 모았습니다. 부족한 자본금은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모두 합쳐 8,0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Q. 창업을 시작한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과 보람찼던 일을 소개해주세요.

A.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럴 경우 예비 점주님들의 자금 확보가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현재까지도 경제 위기가 지속돼 사업 확장이 더딘 상황입니다. 그 점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람찬 일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기존 대체 브랜드보다 퀄리티가 더 좋다는 말을 들을 때 매우 뿌듯합니다. 나아가 예비 점주님께서 경쟁한 타 업체 대신 샐러바웃을 선택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대학 생활 중 창업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경험이 있나요?

A. 여러 요식업 브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경험이 중요하듯 요식업 창업을 꿈꾼다면 다양한 음식점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Q. 입지 선정 시 먼저 고려하는 요소가 있나요?

A. 샐러바웃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패스트푸드’를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가격이 저렴하고 먹기 간편함과 동시에 영양소까지 갖춘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수요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밀접한 권역을 우선 선호합니다. 다만, 사무실 주위에 입점하는 것만으로 점심은 몰라도 저녁 장사까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고



자 저녁 상권까지 채워줄 수 있는 사무실과 오피스텔이 동시에 밀접한 곳을 중점으로 입점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1인 가구 등 ‘혼밥’을 하는 사람들을 주 타겟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Q. 가맹점마다 다른 인테리어로 다른 특징을 띄게 돼서 ‘프랜차이즈’의 홍보 효과가 떨어지진 않나요?

A. 맥도날드, 롯데리아, 서브웨이 등 브랜드의 힘이 강한 기업은 어느 지역에 오픈하더라도 힘이 있기에 인테리어를 통일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통일성이 장점이 되죠. 반면 샐러바웃은 아직 브랜드 힘이 약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보단 점주님들의 입장을 더 먼저 고려했습니다. 프랜차이즈임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매장의 디자인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샐러바웃이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 됐습니다. 대다수의 점주님이 그 점을 가장 큰 메리트로 여겨 샐러바웃을 선택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Q. 2023년 11월 기준 전국에 총 31호점까지 입점하셨습니다. 3년 만에 이룩한 성과인데요. 그 원동력이 뭔지 궁금합니다.

A. 매장 확장의 원동력은 유사 브랜드들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 메뉴 구성과 가성비, 인테리어 개성이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만들고 싶은 브랜드와 이미지에 대한 욕심을 버린 게 주효했습니다. 가맹점 사장님들과 손님이 원하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인테리어부

터 메뉴까지 구성했습니다. 타겟을 설정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경쟁사들과 차별점이 돼 더 많은 가맹점을 개점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Q. 대표님의 다음 행보 및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A. 2024년에 최소 70개 매장 개점, 25년 초 최소 동남아 지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입점까지 계획 중입니다. 한국의 인지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동남아에서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류 문화’를 활용해 해외 진출에 도전하고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최종 목표는 샐러드 및 포케 분야 최다 매장 수를 이루는 것입니다. 더불어 동종업계 1위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더 많은 매장과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가맹점주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Q. 창업을 꿈꾸는 학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학생이니가 졸업부터 해야지!’라는 마인드로 살지 않기를 권합니다. 내가 원하는 분야를 정했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창업을 희망하고 업종까지 선택했다면,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최소 점장 역할까지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창업은 나의 노력과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의 한계선이 없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발전하고자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한국체대 후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운동 일지 어플리케이션 ‘FLAB’ 대표 정진훈 동문(레저스포츠 15) “피트니스 시장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회사 소개와 대표님이 어떤 업무를 맡으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회사 FLAB 대표로서 직접 ‘SSENTIF’이란 어플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트레이너가 효율적으로 고객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PT(Personal Taining) 일지 어플입니다. 오랜 시간 트레이너들이 회원들을 관리할 때 종이와 수기로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트레이너들 역시 디지털로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에 시작한 이후 기획부터 비즈니스 영업까지 트레이너들을 직접 만나 시스템을 보완해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한국체대 학우들에게 앱 개발 사업은 생소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스타트업을 계획하신 건가요?

A. 우리 대학의 특성상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경험 역시 한정적입니다. 타 분야에 대한 확장이 어렵다는 한계를 느꼈고 학교 바깥 생활이 궁금했습니다. 그로 인해 연합 동아리와 교내 스포츠 마케팅 동아리 ‘PLIS’를 시작해 더 다양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관심이 생긴 분야가 IT 관련이었고, 스포츠와 IT가 합쳐지면 재밌게 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때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졸업 직후 취업을 준비했지만, 마음속 창업에 대한 갈망 때문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Q.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아이템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어떤 경험을 쌓으셨나요?

A. 앱 개발 스타트업은 IT 기술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정보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개발자와 직접 소통해야 하기에 IT 관련 용어와 시스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또, 사업을 시작하며 개발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배우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오퍼의 자질을 기르고자 개인적인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학점 혹은 성적을 위한 공부와는 결이 매우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생존하기 위함이었습니

Q. 대학 생활 중 어떤 경험이 창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줬나요?

A. 2020년, 제42대 이음 총학생회에서 부총학생회장장을 맡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부총학생회장으로서 교내의 학칙과 제도에 비합리적인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나씩 개선하며 안전을 내는 과정을 수없이 거쳤고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학교에서 겨울방학 때 보내주는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호수에 2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체육관에서 일하는 트레이너들을 만났습니다. 호주는 트레이너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모두가 트레이너를 멋진 직업이라 여겼습니



다. 그때부터 트레이너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을 통해 그 트렌드를 주도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Q. 비슷한 계열의 타 트레이닝 일지 앱과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나요?

A. 제가 스타트업을 준비한 시기에는 경쟁사가 한 개 있었습니다. 그 경쟁사는 ‘운동’이라는 목적보다 식단과 일정 관리에 맞춰줬다면 저희는 ‘코칭’에 중점을 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모든 트레이닝을 관리하는 하나의 앱’이라는 혁신적인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SSENTIF와 협력한 대부분의 트레이너는 한국체대 졸업생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변 경쟁사는 대부분 개발자로 가득해 트레이너들의 현실적 피드백을 청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동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깝게 들을 수 있어 고객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A. 내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바이럴 홍보(어떤 기업이나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 의 힘을 빌려 알리는 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사람들은 SNS가 연결돼 있다는 특징이 있습

니다. 예를 들어 트레이너가 좋은 제품을 SNS에 추천하면 입소문을 타게 돼 유용한 제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회사와 맞는 이미지나, 영향력 있는 트레이너의 계정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Q. ‘SSENTIF’를 제외한 새로운 확장 사업을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A. 앱과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최근에 PT 샵을 오픈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서비스고, 아이디어라 직접 쓰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아이디어의 가치를 잘 모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물(바벨, 체성분 분석기 등)은 사용하지 않아도 가치가 보입니다. 무형 서비스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PT 센터와 같은 유형의 사업과 서비스를 접목한다면 고객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진로가 체육계라면 한국체육대학교는 분명 큰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융복합 사회에서 체육 ‘만’ 잘하는 건 큰 장점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하나의 분야만 잘해서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분야를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공부나 필요한 사회입니다. 스타트업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분야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점, 다양한 지식이 생기면 본인의 입지 또한 넓어질 거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편집장레터

마지막 고백



한지용 편집장

나는 괴물이다. 칭찬 없이 살아 갈 수 없는 괴물이다. 주변 이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다. 그만큼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기도 하다. 실수를 향한 지적과 비판을 마주할 때면 심장이 쿵쿵 뛴다. 분노보다는 두려움의 감정이다. 그 실수가 나를 ‘별로인 사람’으로 만들까 걱정한다. 가까운 사람들의 지적은 더욱 무섭다. 그들이 내 곁을 떠날까봐. 그래서 편집장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괴로웠다.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다. 사람들 말 한마디에 요동치는 감정을 주체하기가 참 어려웠다.

물론 칭찬을 듣는 경우가 더 많았다. “편집장님, 대단하세요!”, “지용아, 너 덕분에 학보사 수준이 많이 오른 것 같네.”, “올해 학보사는 좀 다르네.”와 같은 말을 전해들을 때면 감추려 했지만, 사실 매우 기뻐다. 인정받고자 미친 듯이 달린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아 내게 쏟아질 비판을 감수하면서 마지막 고백을 하고자 한다.

학보사 편집장을 준비하며 가장 중시 했던 것은 ‘학생들의 관심’이었다. 입대 전, 2년 간 학보사 기자로 활동할 때 가판대에 배포된 신문은 항상 그대로였다. 도무지 팔지 않았다. 신문은 그저 짜장면 받침대일 뿐이었다. 그때부터 결심했다. 내가

편집장이 돼서 모든 학내 구성원이 관심 갖는 학보사를 만들겠다고.

군 생활 도중 A4용지 10장에 육박하는 ‘한국체육대학교 발전 방안’을 적었다. 편집장이 된 후 내가 실행할 정책을 담은 글이었다. 그 내용은 온통 학보사가 어떻게 학생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학내 언론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 나는 명청하게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다.

대가는 컸다. 지난 3월 국민일보에서 게재한 ‘13만원? MT 필참? 서울 한 대학 시끌’이란 기사가 올라왔을 때였다. 우리 대학 공연예술학과 MT와 관련한 논란을 담은 기사였다. 기사를 마주했을 때 일단 취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다. 곧장 당시 주간 교수님을 찾아 자문을 구했다. 오랜 세월 기자생활을 하셨던 교수님은 “언론은 종합적 시각을 담은 기사를 통해 독자에게 판단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줘야 한다.”라고 당부하셨다.

그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은 부끄러움이었다.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한 적 없는 내용이었다. 그 순간 여태까지 난 ‘진짜’ 기자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언론의 역할과 학보의 의무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곧바로 명쾌한 답이 내려지지 않았다. 검색창에 ‘언론의 역할과 의무’ 등을 수차례 입력했다. 알 권리, 판단 동기 제공, 민주주의 가치 실현, 권력 감시 등 당시의 나로서는 아리송한 내용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일련한 취재와 보도 경험은 눈썹만큼 쌓이면서 언론의 역할

을 어렵풋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다. 한 해 동안 나와 학보사 기자들은 우리 대학의 크고 작은 이슈를 꾸준히 마주했다. 올해 유독 기성언론에서 우리 대학의 문제점을 들추는 기사가 많았다. 그때마다 학보만이 쓸 수 있는 기사를 만들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대학 본부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학교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비판적인 기사를 신문에 담았다. 준비된 언론인은 아니었지만, 뒤늦게라도 편집장으로서 학보의 역할과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다. 하지만, 편집장을 맡기 전부터 언론의 역할을 고민했다라면 어땠을까. 분명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부끄러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낀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만을 갈구하는 괴물이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앞으로 우리 학보사의 방향성이 정립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후배들에게 아무것도 알려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다르다. 함께 사건을 바라보고 취재하며 우리는 언론인다운 모습을 조금이나마 갖췄다. 후배들은 적어도 편집장이 되기 전에 나보다 나은 기자일 것이다.

이렇게 편집장으로서 마지막 고백을 남긴다. 내 부끄러운 고백이 영원토록 남았으면 좋겠다. 이 글로 인해 나를 향한 비판이 생길까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한국체육대학교 후배들이 내가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학보의 의무와 언론의 역할이 뭔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한국체육대학교보가 되길 바라며 편집장 한지용의 마지막을 고한다.

기자석 II

고민보다 GO!



원지호 기자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말이다. 당시 출연자의 자녀 이름을 ‘정’ 씨로 지어달라는 요청에 나온 웃긴 답변일 뿐이었대. 그러나 나는 이 말이 꽤나 오랫동안 머릿속에 맴돌았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 그대로 ‘각박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다. 이리저리 치이며 현생을 살아간다. 감정표현은 줄었고 실 틈 없이 돌아가는 쳇바퀴에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움직여버린다.

그 속에서 대학생들은 다들 미래를 위해 각자만의 방법으로 노력한다. 현재 본인의 위치를 깨닫고 부족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목적을 상실한 채 무언가에 쫓겨서 하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한다. 한국체육대학교 학우들도 마찬가지다. 신입생들은 입시가 끝난 후 목표 의식을 잃고 공허함을 느낀다고들 한다. 또 졸업을 앞둔 고학번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한다. 그

들에게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걸 우선시할지 몰았을 때 대부분 후자를 택할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해야만 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해볼 필요도 있다. 단순히 “오래전부터 나 이거 하고 싶었어!”보다도 “오늘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재밌을 것 같아!”를 추천한다. 내 MBTI가 ‘P(즉흥형)’라서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다. 지루하게 말하는 건 반복되는 일상과는 달리 새롭게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배낭 하나만 메고 떠나는 해외여행도 좋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도 좋다.

난 입시가 끝난 후부터 입대하기 전까지 한 학기에 한 번씩은 꼭 해외여행을 다녔다. 학기가 진행 중인 5월에도 학교 축제 기간에 맞춰 ‘공짜 공장’이라는 명분으로 여행을 갔다. 여름에는 너무 더운 한국을 피해 비교적 시원한 동남아시아로 피서를 떠났다. 베트남에서 슬리핑 버스에서 온종일 난만 깜빡이며 이동하고, 오토바이를 빌려 여행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흥분에 갇혔을 땐 카지노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져 계획에도 없던 배를 타고 마카오로 향했다. 카지노 입구에 있는 롤러스

매장을 보고 놀라는 와중에 잽박을 터뜨린 외국인도 목격했다. 이런 경험들은 ‘서울 춘구석 대학생’이었던 나의 시야를 넓혀줬다.

또 나는 프로배구단 경기 진행 보조 아르바이트를 막무가내로 지원한 적이 있다. 스포츠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 경기 가다 끝난 후에도 늦게까지 기자석에 남아 글을 쓰는 이들을 보며 큰 감명을 받은 것이다. 머릿속에 ‘이거다!’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그 순간, 나는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때부터 스포츠 경기를 유의 깊게 보며 스스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글을 배우고자 학보사의 문을 두드렸다. 그 결과 ‘독자들이 읽기 쉬운 글’을 위해 지금도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어른들은 대학생 시절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백번 맞는 말이다. 우리 학우들에게도 이런 말들이 와닿기를 바란다. 진로와 관련 없어도 괜찮다. 본인만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경험하다 보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큰 결심해야 하는 때가 오기 전, 지금을 최대한 즐겨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싶은 건 하면서 살자. 내일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자석 I

주체성을 가르치는 대학이 되도록



박소영 부장기자

‘타닥타닥’. 강의 중 어디선가 키보드 자판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강의실 분위기가 왜 이렇지?’ 대학 강의실과 어울리지 않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다. 앞자리 학생은 노트북으로 자격증 시험 일정을 검색하고 있었고, 대각선에 앉은 학생은 투두리스트(To Do List)를 작성 중이었다. 반면, 강의자료를 켜고 빔프로젝터와 교수님을 바라보는 학생의 수는 손에 꼽았다. ‘이게 대학 강의실 모습이 맞는 걸까?’ 생각하며 내려다본 나의 자리 펼쳐진 노트북에도 수업과 상관없는 한글 파일, 할 일이 적힌 메모장, 각종 창이 가득했다.

과열된 취업 경쟁에서 대학생들은 선택받기 위해 항상 분주하고 불안하다. 대학 졸업증 ‘없이’ 취업할 수 없는 사회지만, 졸업증 ‘만’으로 취업할 수 없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대학 강의에만 전념할 수 없

다. 4년이라는 시간을 아끼고 쪼개 자격증, 대외활동, 공모전 등 이른바 ‘스펙’으로 일컬어지는 것들을 끝없이 쌓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강의는 대학생의 우선순위에 점점 밀려난다.

학문의 전당이라고 불리던 대학은 졸업증 장사꾼으로 변질했다. 이제 도서관에서 전공과목을 탐구하는 대학생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에 다니는 이유는 졸업증 취득이 전보다. 더불어, 정보사회 도래로 대학이 ‘고등 교육 기관’이라는 역할만으로 입지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다양한 전문 서적, MOOC(무크, 대학과 전문 교육기관의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수강 가능한 플랫폼), 심지어 스마트폰 어플 속 AI 강사를 통해 대량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지식을 쌓기 위한 목적이라면 대학이 아닌 더 좋은 선택지가 많다.

취업을 위한 경력은 교외 활동으로 채우고, 스펙을 쌓기 위한 공부는 ‘메가 공부원’, ‘에듀윌’ 등 인터넷 강의 속 강사에게 배운다. ‘고등 교육’이라는 역할에서 ‘취업 알선 기관’으로 변해버린 대학은 어떻게 제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떤 의미로 세상에 남아있어야 할까. 앞으로의 대학은 학생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한국의 많은 청소년이 대학 진학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드는 데 이용 가능한 수단 중 하나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렇게 대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삶의 방향을 잃는다. 혼란스러운 학생들에게 주체적으로 세상을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흡수되지 않는 교양과 전공 지식을 주입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정립하고,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우선이다. 당장에는 듣기 꺼려지겠지만, 4년이 지난 후 한층 성장한 내면을 마주할 것이다.

오랜 시간 뒤 새로워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활약하는 사회를 그려본다. 스스로 정한 길을 나아가는 진정한 어른이 돼 감사한 마음으로 모교에 방문한다. 강의실 앞에 서서 자신이 대학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소개하며 후배들에게 대학의 진가를 설명한다. 그 가르침을 들은 후배들은 다시 선배가 지나간 길을 따라가거나 기존에 없던 길을 새롭게 나아간다. 이렇게 한 명씩, 한 해씩 바뀐다면 ‘취업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서서히 변할 거라 믿는다.

기자석 III

제46대 총학생회장 선거, 또 외면하실 겁니까?



송현일 부장기자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전 7시에 눈을 뜬다. 졸음이 몰려오지만 1교시 수업이 있어 곧장 몸을 일으킨다. 완전히 잠에서 깨고자 샤워실로 향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 씻어낸 후 옷을 갈아입는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장롱을 열어 패딩을 꺼낸다. 빠뜨린 짐은 없나 다시 한번 가방을 살피고 채비를 마친다. 집 밖으로 나오니 모 고등학교 앞 현수막 글귀가 눈길을 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주위를 살피자 수험생들이 길바닥에서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제야 오늘이 수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윽고 감상에 젖는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우리 대학 입학은 고3 시절 나의 꿈이었다. “금방 갈게 한체대야”가 적힌 포스트잇을 학교 책상 오른쪽 위 구석에 붙여두고 다녔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면 그날의 피로보

다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갔다는 뿌듯함이 먼저 느껴졌다. 수능 당일에는 ‘한국체육대학교’가 등에 적힌 티셔츠를 입고 고사장으로 향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축하합” 문자를 받고서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부른 기대를 안고 대학 생활을 시작했으나 막상 마주한 현실은 상상과 달랐다. 학교의 주인은 분명 학생이라 믿었던만 상식을 뒤집는 일들이 줄곧 펼쳐졌다. 2020년 5월, 생활무용학과가 공연예술학과로 개칭됐다. 2021년 7월, 붉은색이던 로고가 조록빛으로 물들었다. 2022년 9월, 대학평의원회가 우리의 총장 선거 투표 비율을 5%로 결정했다. 모두 ‘본교의 소통 없는 일방적 의사 결정 방식’이 만든 결과다. 이런 일이 거듭되자 언젠가부터 내가 한국체대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았다.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우리 중 대다수가 스스로 학교의 주인임을 포기하는 걸 보며 이내 착각임을 깨달았다. 작년 10월 제44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총장 선거 투표 비율을 확대하고자 여론 조사를 펼쳤다.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고작 59개 응답에 머물렀다. 총학은 “간혹히 부탁드립니다”라며 에브리타임 게시물 통해 다시금 참여를 촉구했다.

이를 두고 한 학우는 “이러니가 학교의 권력자가 학교를 맘대로 휘두르고, 학교의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지”라고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남겼다.

학생 사회는 정말 무너져가는 걸까. 같은 해 말, 제45대 총학생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투표율이 50%도 채 되지 않았다. 누군가 우리를 대표해 학교를 변화시키고자 나섰으면 적어도 관심은 보여야 할 것 아닌가? 어찌 이렇게 남 일인 양 반응조차 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고도 나중에 본인이 역올한 일을 당하면 남이 대신 해결해주길 바랄 텐가? 모든 불합리함을 혼자 감당할 자신이 있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인가?

학우들에게 호소한다. 제46대 총학생회장 선거가 한창이다. 아주 잠깐만 시간을 내 투표하자. 1분이면 내년 학교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얼마 전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보며 과거의 나를 떠올렸다. 여러분도 분명 기대를 가득 안고 한국체대에 입학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은 대학 생활에 고개를 돌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올 신입생들은 죄가 없지 않은가? 선배로서 그들의 꿈을 지켜주자. 장담컨대, 당신이 변하면 학교도 변한다.

한국체육대학교

http://news.knsu.ac.kr

발행인 | 문원재 주 간 | 김현정 기 획 | 김세준 편집장 | 한지용
기 자 | 박소영·박서진·송현일·원지호·강현석·박정윤·이선우·백종훈·송차호·이세은·김채람·최은진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메타버스 도서관 4층 학보사
전 화 | (02)410-6556

동화 속 작은 축제, 제9회 학보사 사진 공모전

제9회 학보사 사진 공모전이 ‘천마 축제: 동화’기간인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본교 천마상에서 진행됐다. 사진전의 주제는 '축제'였다. 총 46명의 학생이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구글 설문지를 통해 출품했다. 1차 심사는 학보사 구성원의 내부 평가로 진행됐다.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한 1차 심사에서 46점의 사진 중 20점을 선발했다. 이후 1차 심사를 통과한 스무 작품을 천마상 주변에서 전시했다. 동시에 작품을 관람한 학내 구성원들의 현장 투표 역시 함께 진행됐다. 또한 김현정 교수(학보사 주간 및 교양교직과정부장), 박채희 교수(노인체육복지학과), 이정호 교수(체육학과), 이지원 교수(공연예술학과)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학내 구성원 393명의 현장 투표 50%, 전문가 4인의 평가 50%를 합산해 <불꽃 대신 은하수>를 출품한 전아현 학우(특수체육교육 20)가 명예의 대상을 거머쥐었다. 뒤이어 임지민 학우(레저스포츠산업 20)가 금상, 박인철 학우(스포츠산업 22)가 은상, 신준호 학우(특수체육교육 19)가 동상을 차지했다. 장려상은 이들을 제외한 상위 10명의 학우에게 주어졌다. 입상작 중 상위 네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은진 수습기자 cejinckd@naver.com

대상



〈불꽃 대신 은하수〉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라는 노래를 부르며 우주를 동경했던 어린 시절을 지나 어른이 돼서도 쌀알 뿌린 듯 별들이 뿜어낸 하늘 보니 어린이처럼 마음이 설레고 두 손 고이 모아 소원을 빌었다. 하늘에서 펼쳐지는 별들의 잔치 덕에 나한테 낭만과 동심을 선물해 준다면 이것이 진정한 축제 아닐까?

전아현 학우(특수체육교육 20)

“몽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은하수를 직접 보는 것이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학우들과 공유하고 싶어 출품하게 됐습니다. 사진전 첫 출품이라 참가에 의미를 뒀습니다. 경쟁한 작품들 사이에서 대상을 받게 돼 학우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

“

우리는 보통 강물 같은 잔잔한 하루를 살아가지만, 가끔은 불꽃처럼 화려한 날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는 학우들도 불꽃이 일렁이는 강물 같은 나날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품작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학우들이 투표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사진 설명을 집중해서 보는 모습에 설명을 열심히 적은 입장에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

금상



〈die Feier(순간의 낭만)〉

‘die Feier’. 독일어로 축제를 뜻한다. 결국 재가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불꽃을 즐기는 불꽃 축제와 잘 어울리는 단어다. 하늘에 피워낸 불꽃의 꽃말은 순간의 낭만이 아닐까?

피웅, 꽃을 피우러 가는 순간부터, 평, 형형색색의 꽃이 피고, 고요하게 빛이 사라지는 찰나까지 만개한 꽃이 밤하늘에 자리하면 모든 순간을 장작 삼아 타오른 불꽃을, 그리고 불꽃이 재가되어 희미해지는 순간을 찰나의 빛으로 기억할 우리 날마다 축제처럼 살 수는 없더라도 불꽃 밑의 잔잔한 감처럼 형형색색의 불꽃이 일렁이는 하루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찍은 사진이다.

임지민 학우(레저스포츠산업 20)

은상



“장소 시간,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오는 것이 사진의 매력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찍고자 자주 사진을 찍으러 다닙니다. 불꽃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 전부터 저만의 '포토 스팟'을 찾고자 이곳저곳 돌아다녔습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찍은 사진으로 수상까지 하게 돼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 사진에 좋은 평가를 남겨주신 건 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하나 되는 축제〉

축제를 생각했을 때 올해 가장 큰 규모의 축제 중 하나였던 여의도에서 열린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떠올랐습니다. 축제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불꽃 축제 사진 중 다양한 색상이 모여 하나가 되는 사진을 선정하였습니다. 제가 본 곳에서는 남자 여자 어린이가 어르신 심지어는 외국인까지 너 나 할 것 없이 그 순간에는 다 같이 불꽃놀이를 즐기는 모습에서 진정한 축제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인철 학우(스포츠산업 22)

“

축제를 즐기며 특별한 하루를 보내는 학우들과 여름의 기억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기대보다 우수한 성적을 받게 돼 정말 기쁩니다. 학보사에서 주최하는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있다면 꼭 지원하고 싶습니다.”

”

동상



〈축제의 이면〉

햇빛 내리쬐는 여름날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높은 곳에서 물을 뿌려주는 라이프가드의 뒷모습과 풀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담은 사진이다. 라이프가드의 피부색을 통해 뜨거운 여름 날 얼마나 고생했는지 느낄 수 있는 사진이며 풀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풀 파티를 위해 고생하는 라이프가드의 모습을 찍으며 축제의 이면을 담은 사진이다.

신준호 학우(특수체육교육 19)